



산업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신중 대응 중

<보도 내용>

- 2025.7.15. 국민일보 “산업부 ‘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완화’ 검토 중” 기사에서
- 국민일보는 “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 중...”, “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조치를 완화하는 안이 대표적”이라고 보도했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‘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완화’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,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가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통상당국은 대미 관세협상에서 쌀,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입니다.

담당 부서	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	책임자	팀 장	정성화(044-203-5640)
		담당자	사무관	조은형(044-203-5641)